

한국에서도 담배의 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흡연자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담배에 대한 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담배를 피는것은 나쁘다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담배를 필때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누구나 담배를 필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학 발표에 의하면 간접흡연도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처럼 몸에 나쁜 담배를 장소에 관계없이 피워서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간이 제한된 공동의 장소에서는 더욱더 주의해야 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주의는 꼭 규칙을 만들어 금지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껏 버스나 전차에서 담배를 핀 사람을 본적이 없다. 이처럼 스스로의 자각으로 담배를 피워도 될 장소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지는 않을까?

물론 공공의 장소에서 담배를 필수 없도록 규칙을 만드는것에도 찬성이다. 내 의견을 정리해보면 담배를 필수있는 권리는 인정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더구나 공공의 장소라면 나는 인정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지 않을까.